

아산재단은 'SOS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담당할 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외로운 아이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11살 아이가 갑작스러운 보호자의 별세로 돌봄과 생계가 모두 중단되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설에 입소하기 전까지 공백기 동안 홀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에게 아산재단의 신속한 지원은 '나를 응원해 주고 지켜봐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 굶지 않고 학교에 다니며 계절에 맞는 옷과 신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웃을 고르고 식사를 챙기며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모가 된 마음으로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어른으로서 제 삶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아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친구도 사귀고 있습니다. 아이를 대신 하여, 또 현장에서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산재단의 지원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 역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현희 드림




아산재단은 우수 인재 양성과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2024년 아산재단의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재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과 탐구를 주도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경험은 제 연구 역량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주최한 장학생 간담회는 제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연사 초청 강연은 제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되었고,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장학생들과의 네트워킹은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연구자로서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생명과학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상석 드림

